

세계유산 보존정책 · 관광활성화 방안 모색

익산시, 일본 나라(奈良) 등 문화재 보존·활용정책 의견 교환

정현을 익산시장과 조규대 익산시의 회 의장은 지난 11일부터 4일간 일본 고도(古都) 오사카(大阪), 나라(奈良)의 문화유산과 관련기관을 방문해 선진 문화재 보존·활용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연수는 왕궁 후원 개방 및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준공에 따른 해외 세계유산의 보존과 복원·활용 사례를 통해 익산 백제왕도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 유산을 활용한 주변 관광시설의 성공 사례 등 관광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12일에는 나라시 일원의 법률사, 동대사, 평성궁(고대나라의 역사기념물, 1998년 세계유산 등재) 등 백제와 문화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 유적들을 둘러본 후 일본 문화재 보존에 가장 권위 있는 독립행정법인 나라문화재연구소를 방문해 마츠무라 케이치 소장장과 세계유산의 보존과 복원방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연구소에서 중점 추진하는 평성궁은 나라시대(710~794)에 왕궁으로 1978년부터 복원고정연구를 통해 정적인 대극전과 주작문이 복원(2010년)되어 있으며, 현재도 왕궁의 중심 시설인 대극전원 복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간담회에서 정현을 익산시장은 "세계유산 평성궁과 백제왕궁(왕궁리유적)은 시기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아 향후 왕궁리유적의 정비와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 기관의 연구자료 등을 교환했다. 13일에는 오사카시야마시청을 방문해 후루카와 테루히토 시장과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도시 대표들은 역사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두 도시의 공통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교류와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두 도시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관광활성화에 대한 행정의 역할과 정책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이 세계문화유산 보전과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모색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오사카(大阪)와 나라(奈良)의 문화유산과 관련기관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후루카와 시장은 "사이바이케는 7세기 야스카시데 일본 최고(最古)의 수리시설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면서 익산의 세계유산 등재과정과 등재 이후 보존관리정책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또한 후루카와 시장은 백제왕도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익산시와 지속적 우호협력을 제안했으며, 이에 정

시장도 익산 방문을 제안했다. 정 시장은 "외국의 선진 문화정책을 통해 익산만의 강점을 살린 문화재 보존관리시스템과 관광활성화 정책을 새롭게 구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세계적인 역사도시 및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교류협력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10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시행

대출 2000만서 최대 5000만원까지... 금리 2%에서 1.7%로 낮춤

군산시(시장 김일준)는 15일부터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100억원 규모로 전면 확대해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 능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군산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써 전면 확대 시행되는 이번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군산시에서 재원을 출연해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대출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높이고 자부담 금리를 기존 2%에서 1.7%로 낮춰준 것은 물론 이자보전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김일준 군산시장은 "민선 7기 시장 운영의 주요 핵심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일"이라며 "군산사랑상품권에 이어 이번에 실시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지원 사업 역시 골목상권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

하고 경영이 안정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확대되는 특례보증사업의 신청 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3개월이 경과된 군산시 관내 소상공인이며, 신용등급 3등급 이하 10등급 이상인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등급 9~10등급인 소상공인과 사실상 휴 폐업자, 중복지원자들은 은행신사가 거절될 수 있으며,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6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혀 없다.

특례보증 신청 절차는 먼저 조촌동 상공회의소 1층에 위치한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해 방문상담 후 안내받은 추가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이후 특례보증 협약 은행인 NH농협, 전북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중 한 개 은행을 선택,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되고 실제 대출금액이 입금되기까지 통상 2주 인박이 소요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454-2704) 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452-034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위한 회의

익산시가 14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에서 민간기관 종사자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계 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tudy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통합사례회의는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사례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을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모여 공유하고 학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귀순 복지청소년과장은 "통합사례

관리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관리 중 주요 서비스 기관과 내용에 대한 협의 조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여 사례관리 주요 자원으로 연계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김장철 생활쓰레기 무상 수거 실시

군산시는 김장철 채소쓰레기(배추 잔재물, 무청 등)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올해 말까지 김장쓰레기 특별처리 기간으로 정하고 무상 수거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 처리기간 동안에는 김장 후 다량으로 발생하는 배추 및 무청 등의 채소 잔재물을 처리비용 없이 무상으로 수거하여, 김장철 채소쓰레기 처리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 시 일반 생활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수거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장 채소쓰레기는 종전대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진희병 자원순환과장은 "특별 수거 처리기간에 김장철 채소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도심미관 저해 및 악취발생 등의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디지털농업인대학 졸업식이 농업인회관에서 열렸다.

'창업농업 리더과정' 이수

군산시, 디지털 농업인대학 졸업식 개최

군산시 디지털농업인대학 제11기 졸업식이 14일 농업인회관에서 졸업생 40명을 비롯한 총동창회 관계자 및 졸업생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11기 졸업생 40명은 지난 3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총 24회 120여 시간동안 지역농업인을 위한 FTA 대응 글로벌 농업인으로 양성해 미래농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창업농업 리더과정'을 이수했다.

김병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배운 것을 잘 활용해 지역 농업 리더로서 큰 역할을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며 "2019년

디지털농업인대학은 3개 교과과정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기 졸업생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인 대학원 과정을 개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디지털농업인대학은 2008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지금까지 11기에 걸쳐 44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디지털농업인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농업인은 급변하는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강소농 육성 프로그램과 품목별농업연구회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게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사회복지 정책세미나 성료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오성배)는 지난 13일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에서 2018 익산시 사회복지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익산지역의 복지시설 기관 및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포용적복지 시대의 커뮤니케이션 방향과 과제 및 사회복지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주제로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1부는 한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가 커뮤니케이션의 구현 과정에 기존 지역복지와 사회서비스의

이슈, 쟁점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제2부는 익산시청 기초생활과 박명순 주무관이 강연자로 나서 복지서비스는 풍성하고, 복지제정을 알릴 수 있는 운영하는 방법에 강연을 했다.

유창숙 복지환경국장은 "시 복지정책은 민관의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양적, 질적 측면에서 발전을 이루었다"며 "세미나를 통해 새 정부 복지정책의 변화와 역할을 인식하며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 동절기 대비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군산시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점검을 비롯해 주거난방 취약가구에 대한 발굴·지원에 나선다. 노숙인 시설의 단전·단수상태, 보일러 및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난방연료 지원 및 맞춤형 겨울나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도우미 제도를 통해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노인 돌봄 등 민간 서

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동절기 피해 등에 대한 교육 서비스도 한층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 대비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이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시민역할이 중요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시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로 즉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푸르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힐 NK프로젝트 홍보사 하지원